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 VIP 리포트

-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큰 폭 상승

발행인 : 하태형

편집주간 : 한상완

편집위원 : 주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02-2072-622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큰 폭 상승

Executive Summary .....	i
1.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종합평가 .....	1
2. 특징 분석과 항목별·성향별 평가 .....	2
3. 시사점 .....	6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 개요 .....	7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8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9
【HRI 경제 통계】 .....	14

## &lt; 요약 &gt;

■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전망 -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큰 폭 상승

(종합 평가) 2014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는 모두 상승세로 반전했다.

4/4분기 평화지수는 1년만에 상승세로 반전되어 44.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로 전환되었다.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 역시, 전기 대비 11.1p 상승한 51.8을 기록해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주요 특징) 2014년 4/4분기 평화지수와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는 다음의 특징이 있다.

첫째,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했다. 실적치에 기초한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 지수는 1.9p 상승에 그쳤으나, 전문가 평가지수는 7.7p, 기대지수는 11.1p나 상승해 체감지수가 더 많이 상승했다. 이는 북한 실세 3인방의 방문과 남북 양측 정상들이 신년사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할만한 공동행사 추진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객관적 지표인 정량분석 지수는 개성공단 사업 증가 등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이는 개성공단의 남북경협 사업이 지난 3/4분기 12.2%에서 4/4분기에는 16.2%로 증가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반발과 남남갈등, 고위급 접촉 무산 등은 지수 상승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성향별 구분 없이 남북관계에 대한 모든 전문가들의 평가가 호전되었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보 성향의 경우, 올해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 등의 뜻깊은 행사 추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시사점)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도 있는 만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실질적 성과 도출'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작은 성과라도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분위기 조성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광복 70주년 공동 행사 추진을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둘째, 상호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 차원에서 '일시적·시범적'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과 우리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최소한 8.15 행사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라도 '일시적·시범적'으로 시행으로 실질적 성과 도출을 추진해볼만하다.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김정은 체제 들어 개혁·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북한의 변화 방향이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남·북·중 혹은 남·북·러 접경지역의 다자 공동경협 사업 추진과 함께,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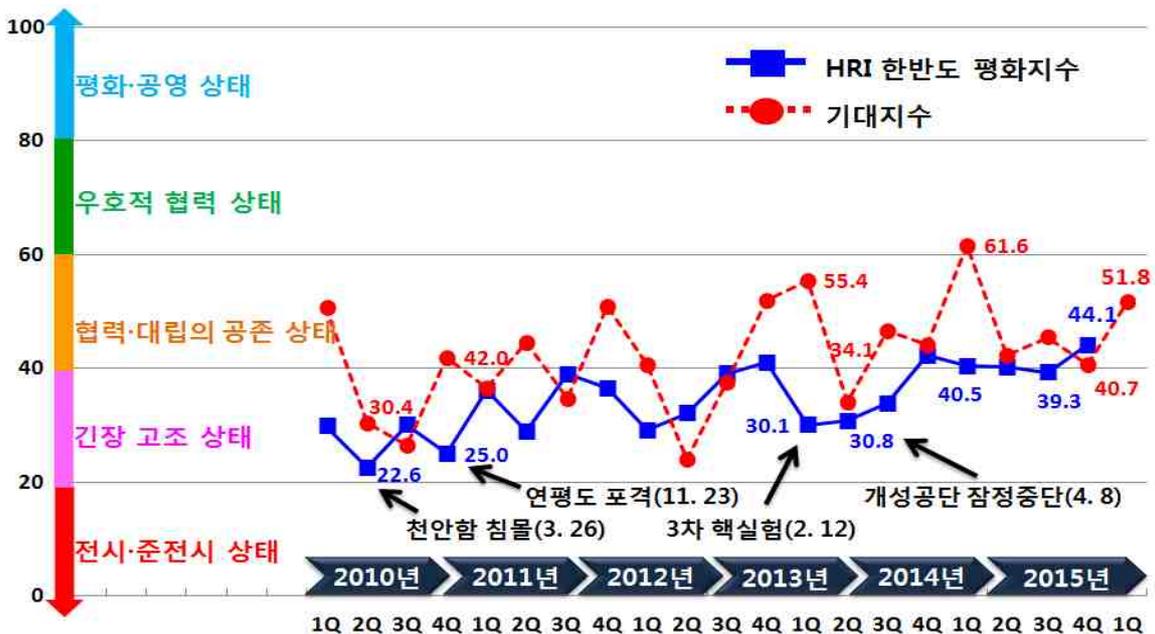
### 1. 2015년 1/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 종합평가1)

○ (종합) 2014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와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 모두 상승세로 반전

- (평화지수) 2014년 4/4분기 한반도 평화지수가 44.1을 기록함으로써 남북관계는 '긴장 고조 상태'에서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에 재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4/4분기 평화지수는 1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하여, 전기의 39.3에서 4.8p 상승  
 · 이는 북한 실세 3인방 방문으로 인한 전문가 평가지수 상승과 개성공단의 남북 경협 증가 등으로 인한 교류협력 지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평가됨

- (기대지수) 전기 대비 11.1p 상승한 51.8을 기록해 전문가들의 2015년 1/4분기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인 평가로 반전  
 · 이는 남북 양측이 신년사 등을 통해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0~2015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1)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반도 평화지수 조사를 위해, 2015년 1월12일부터 18일까지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03명(보수 33명, 중도 41명, 진보 29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임.

## 2. 특징 분석과 항목별 · 성향별 평가

○ (특징 분석) 주관적 · 객관적 지수 모두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며, 특히 전문가 평가지수와 기대지수 등 주관적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상승

- 2014년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39.0, 정량분석지수는 49.2를 기록함으로써 지난 분기에 비해 모두 상승
  - 특히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 평가지수는 3/4분기에는 31.3으로 1.8p 하락했으나, 이번 분기에는 7.7p나 큰 폭으로 상승
  - 이는 북한 실세 3인방 방문과 금강산·개성 등지에서의 남북한 합동법회, 11월 러시아산 석탄의 시범 수송(하산~나진~포항) 등의 성과 등에 따른 것임
  - 다만 고위급 접촉 무산과 대북 전단 살포 등은 지수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
- 2015년 1/4분기 기대지수는 지난 분기 4.8p 하락에서 11.1p 대폭 상승으로 반전
  - 이는 남북한 정상들이 신년사에서 광복 70주년을 기념할만한 남북공동행사 추진이나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데 대한 기대감이 반영

< 2012~2014 HRI 한반도 평화지수 추이 >

구분	HRI 한반도 평화지수					기대지수
		전문가 평가지수	정량분석지수			
			이벤트지수	교류지수		
'14. 4분기	44.1 (▲4.8)	39.0 (▲7.7)	49.2 (▲1.8)	46.9 (▲0.3)	51.5 (▲3.0)	51.8 (▲11.1)
'14. 3분기	39.3 (▽0.3)	31.3 (▽1.8)	47.4 (▲0.1)	46.3 (▽0.5)	48.5 (▲0.8)	40.7 (▽4.8)
'14. 2분기	40.2 (▽0.3)	33.1 (▲1.7)	47.3 (▽2.3)	46.8 (▽5.5)	47.7 (▲0.8)	45.5 (▲3.2)
'14. 1분기	40.5 (▽1.8)	31.4 (▽14.2)	49.6 (▲10.6)	52.3 (▲5.2)	46.9 (▲16.1)	42.3 (▽19.3)
'13. 4분기	42.3 (▲8.4)	45.6 (▲8.9)	39.0 (▲8.0)	47.1 (▲0.6)	30.8 (▲15.2)	61.6 (▲17.5)
'13. 3분기	33.9 (▲3.1)	36.7 (▲3.9)	31.0 (▲2.2)	46.5 (▲16.6)	15.4 (▽12.3)	44.1 (▽2.6)
'13. 2분기	30.8 (▲0.7)	32.8 (▲6.7)	28.8 (▽11.1)	29.9 (▽3.6)	27.7 (▽18.5)	46.7 (▲12.6)
'13. 1분기	30.1 (▽11.0)	26.1 (▽7.8)	39.9 (▽8.4)	33.5 (▽14.6)	46.2 (▽2.3)	34.1 (▽21.3)
'12. 4분기	41.1 (▲2.0)	33.9 (▲6.3)	48.3 (▽2.2)	48.1 (▽3.6)	48.5 (▽0.7)	55.4 (▲3.5)

○ (항목별 평가) 주관적 지표인 전문가평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실적에 기초한 정량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음

(1) 전문가평가지수 (2014년 3/4분기 : 31.3 → 4/4분기 : 39.0)

- 총 103명의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이전 분기에 비해 큰 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에 머물고 있음
- 4/4분기 전문가평가지수는 3/4분기 대비 7.7p 상승한 39.0을 기록하였으나, 전문가들의 인식은 여전히 '긴장 고조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음
- 이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인한 고위급 접촉 무산과 관계 개선의 모멘텀 기회 미활용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준 데 기인

(2) 정량분석지수 (2014년 3/4분기 : 47.4 → 4/4분기 : 49.2)

- 4/4분기 정량분석지수는 지난 분기 47.4에서 1.8p 상승한 49.2를 기록하여 증가세를 유지하였음
- 정량지수의 소폭 상승은 개성공단의 남북경협 사업 증가(3/4분기 12.2% → 16.2%로 확대) 등으로 인한 '교류지수' 상승에 따른 것임

< 2010~2014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의 추이 >



① 이벤트지수 (2014년 3/4분기 : 46.3 → 4/4분기 : 46.9)

- 이벤트지수는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지난 분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그침
- 다시 말해, 지난 10월의 북한 실제 3인방 방문과 11월의 나진·하산 프로젝트 시범사업 성과, 이휘호 여사의 방북 협의 등으로 상승 요인이 있었음
-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로 인한 북한의 반발과 남남갈등, 고위급 접촉 무산 등을 비롯해 이휘호 여사의 방북 연기 등은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

② 교류지수 (2014년 3/4분기 : 48.5 → 4/4분기 : 51.5)

- 교류지수는 지난 분기에서 3.0p 상승한 51.5를 기록해 상승세를 유지
- 교류지수의 상승세 지속은 남북교역(3/4분기 5억 8,790만 달러 → 6억 8,288만 달러, 16.2% 증가)을 비롯해, 방남 인원(전 분기 대비 350명 증가, 인천아시안 게임 참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전 분기 대비 85만 달러 증가) 확대 등에 따른 것임

< 2010~2014 이벤트지수와 교류지수의 시계열 추이 >



주 : 이벤트지수는 정치·군사 분야의 변화를, 교류지수는 경제·사회·인도지원 분야의 변화를 표시.

○ (성향별 평가) 성향 구분 없이 모든 전문가들의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가 호전되었으며, 특히 진보 성향의 평가가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

- 2014년 4/4분기 성향별 전문가평가지수는 성향 구분 없이 모두 상승세로 반전되었고, 특히 진보 성향이 지난 분기에 비해 15.0p 대폭 상승한 것이 특징
  - 진보 성향의 큰 폭 상승은 대북 전단 살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세 3인방 방한과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10. 13)에서의 '5.24 조치도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됨
- 2015년 1/4분기 전망에 대한 기대지수 역시, 모든 성향이 5p 이상 상승한 것으로 응답했고, 진보 성향의 경우는 20.0p나 대폭 상승하였음
  - 지수 상승은 신년 들어 남북 양측 지도자들의 '대화 분위기 조성 노력' 발언과 광복 70주년 기념의 남북공동행사 추진 의지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특히 진보 성향의 높은 상승은 '기대감'과 함께, 올해가 광복 70주년과 6.15공동선언 15주년 등의 뜻깊은 행사 기념과 함께, 전국적 단위의 선거가 없는 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마련되길 바라는 '소망'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

< 성향별 전문가 평가지수 >

구분	보수 성향		중도 성향		진보 성향		전문가 평가지수	HRI 평화지수	기대지수
	현재	예상	현재	예상	현재	예상			
'14. 4분기	39.0 (▲2.4)	53.9 (▲7.7)	39.5 (▲5.2)	47.3 (▲5.2)	39.4 (▲15.0)	55.4 (▲20.0)	39.0 (▲7.7)	44.1 (▲4.8)	51.8 (▲11.1)
'14. 3분기	36.6 (▲4.0)	46.2 (▲1.1)	34.3 (▽1.4)	42.1 (▽4.3)	24.4 (▽7.1)	33.4 (▽11.0)	31.3 (▽1.8)	39.3 (▽0.3)	40.7 (▽4.8)
'14. 2분기	32.6 (▲1.5)	45.1 (▽0.9)	35.7 (▲4.6)	46.4 (▲3.4)	31.5 (▲5.2)	44.4 (▲3.2)	33.1 (▲1.7)	40.2 (▽0.3)	45.5 (▲3.2)
'14. 1분기	31.1 (▽10.8)	46.0 (▽12.2)	31.1 (▽14.9)	43.0 (▽20.1)	26.3 (▽21.2)	41.2 (▽21.4)	31.4 (▽14.2)	40.5 (▽1.8)	42.3 (▽19.3)
'13. 4분기	41.9 (▲6.9)	58.2 (▲16.7)	46.0 (▲6.5)	63.1 (▲15.9)	47.5 (▲12.4)	62.6 (▲20.1)	45.6 (▲8.9)	42.3 (▲8.4)	61.6 (▲17.5)
'13. 3분기	35.0 (▲3.0)	41.5 (▽8.4)	39.5 (▲2.4)	47.2 (▲1.3)	35.1 (▲7.0)	42.5 (▽1.8)	36.7 (▲3.9)	33.9 (▲3.1)	44.1 (▽2.6)
'13. 2분기	32.0 (▲4.9)	49.9 (▲16.2)	37.1 (▲11.8)	45.9 (▲12.4)	28.1 (▲3.6)	44.3 (▲9.0)	32.8 (▲6.7)	30.8 (▲0.7)	46.7 (▲12.6)
'13. 1분기	27.1 (▽7.2)	33.7 (▽23.9)	25.3 (▽11.8)	33.5 (▽23.6)	24.5 (▽6.1)	35.3 (▽15.7)	26.1 (▽7.8)	30.1 (▽11.0)	34.1 (▽21.3)
'12. 4분기	34.3 (▲3.9)	57.6 (▲8.4)	37.1 (▲8.5)	57.1 (▲9.5)	30.6 (▲4.0)	51.0 (▽3.4)	33.9 (▲6.3)	41.1 (▲2.0)	55.4 (▲3.5)

### 3. 시사점

- 첫째, 남북한 모두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선 의지가 있는 만큼, 모멘텀 마련을 위한 우리정부의 선제적인 분위기 조성 노력이 필요
  - 남북한 양측은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화해협력 방향으로의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천명한 바 있음
  - 더욱이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관계 개선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전문가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음
  - 특히 박 대통령께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회의에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대화 여건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강조한 만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고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선제적 제안이 요구됨
- 둘째, 상호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 차원에서 ‘일시적’ 대북 중단 살포 중단 과 인도적 지원 확대, 경제·사회 분야의 교류 확대 등을 제안
  - 양측의 최우선 현안 맞교환 : 북측이 요구하는 대북 중단 살포 중단 등과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8.15 공동행사를 시행하기 이전까지라도 ‘일시적·시범적’으로 시행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자고 제안
  -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 교류 확대 :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영유아와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체육·문화 분야 등의 청소년 교류를 확대
- 셋째,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상생의 협력 방안과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을 유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김정은 체제 들어 개혁·개방과 외자유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간의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 개혁·개방이 확대되도록 협력 방안 모색
  - 이를 위해 접경지역 중심의 남·북·중 혹은 남·북·러 다자간 공동경협 사업 추진과 함께, 남북경협을 북한의 경제개발구 개발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 남북경협 확대를 통한 경제력 격차 확대는 통일비용 절감과 통일기반 조성에도 기여하는 ‘통일비용의 사전적 분산 투자’라는 인식 공유 필요 **HRI**

경제연구본부 홍순직 수석연구위원 (031-288-7964, sjhong@hri.co.kr)

이용화 선임연구위원 (031-288-7966, yhlee@hri.co.kr)

### < 부록 1 > HRI 한반도 평화지수(HRI Peace Index)의 개요

- 한반도 평화지수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전체적인 평화의 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써 나타낸 지수임
- HRI 한반도 평화지수는 주관적 분석 방법론과 객관적 분석 방법론을 종합하여 분석한 통합지수이며, '전문가평가지수'와 '정량분석지수'로 구성
  - 전문가평가지수는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설문 조사를 통해 산출되며,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를 바탕으로 '기대지수'도 측정
  - 정량분석지수는 정치·군사 영역의 '이벤트 지수' 사회·문화·인도적 영역의 '교류지수'로 구성됨
- 지수의 범위를 0에서 100으로 설계하였으며 50을 기준으로 0은 남북한의 전시 상태를, 100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함<sup>2)</sup>

< HRI 한반도 평화지수와 관계 범주 >

관계 범주	내 용	지수 범위
평화·공영 상태	남북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 공존 및 남북 평화체제가 서서히 수립되는 상태	80이상
우호적 협력 상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태	60~80미만
협력·대립의 공존 상태	남북 간의 대화와 갈등이 교차되는 상태	40~60미만
긴장 고조 상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어 상대방에 대한 실제적인 위협 혹은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	20~40미만
전시·준전시 상태	핵위기가 고조되거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되어 전면전으로 치달는 상태	20이하

2) 제시된 관계 범주는 산출된 HRI 한반도 평화지수의 크기에 따라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의 정도가 현재 혹은 향후 대체로 어떠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참고자료이다. 따라서 HRI 한반도 평화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수들이 이 범주에 그대로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 부록 2 > 교류지수 주요 변수

< 교류지수 주요 변수 구성 >

구 분	중분류	변수
경 제 (6개 변수)	남북 교역	남북한 교역액
		경제 협력액
	협력 사업	협력사업 승인 수
		경제교류협력지원
	관광	금강산 관광객
		개성 관광객
사 회 · 문 화 · 인 도 (8개 변수)	왕래	방남 인원
		방북 인원
	이산가족	이산가족 상봉 수
		이산가족교류지원
	사회문화협력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수
		사회문화협력지원
	인도적 지원	대북지원 (정부)
		대북지원 (민간)

- 주 : 1) 남북한 교역액은 일반 교역과 위탁 가공으로 구성.  
 2) 경제 협력액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리고 기타 경제 협력액으로 구성.  
 3) 경제교류 협력지원은 협력기금의 경제분야 교류협력기반 조성액과 남북교류협력지원  
 용자액의 합.

### < 부록 3 > 남북관계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 개요

- 조사 시기 : 2015년 1월 12일 ~ 18일 (7日 간)
- 조사 방법 : 설문지 조사
- 조사 대상 : 연구원, 교수, 남북경협 기업대표 등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103명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표본오차는 ±3.08%

#### 2. 조사 내용

##### □ 남북관계 분석 및 전망

##### 1. 정치·군사 관계

###### 1-1) 남북 당국자 간 정치적인 신뢰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9	22.0
2. 그렇지 않다	44.7	48.4
3. 보통이다	36.9	27.5
4. 그렇다	13.6	2.2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1-2)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완화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8	24.2
2. 그렇지 않다	44.7	50.5
3. 보통이다	37.9	22.0
4. 그렇다	9.7	3.3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1-3) 북한의 대외관계 및 국제사회에서의 입지가 나아지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6.5	19.8
2. 그렇지 않다	48.5	50.5
3. 보통이다	27.2	24.2
4. 그렇다	7.8	4.4
5. 매우 그렇다	0.0	1.1
계	100.0	100.0

1-4) 북한의 내부 통치 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0.0
2. 그렇지 않다	7.8	12.1
3. 보통이다	40.8	48.4
4. 그렇다	49.5	36.3
5. 매우 그렇다	0.0	3.3
계	100.0	100.0

1-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정치·군사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8	20.9
2. 그렇지 않다	40.8	54.9
3. 보통이다	42.7	20.9
4. 그렇다	8.7	3.3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1-6) (전망) 남북 간 정치·군사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9	11.0
2. 그렇지 않다	25.2	39.6
3. 보통이다	39.8	35.2
4. 그렇다	30.1	14.3
5. 매우 그렇다	1.0	0.0
계	100.0	100.0

## 2. 경제적 관계

## 2-1)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가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7.8	16.5
2. 그렇지 않다	46.6	47.3
3. 보통이다	41.7	31.9
4. 그렇다	3.9	4.4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2-2)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2.2
2. 그렇지 않다	13.6	19.8
3. 보통이다	32.0	39.6
4. 그렇다	46.6	36.3
5. 매우 그렇다	4.9	2.2
계	100.0	100.0

## 2-3) 북한 경제의 개방이 점차 확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3.3
2. 그렇지 않다	22.3	20.9
3. 보통이다	53.4	48.4
4. 그렇다	21.4	26.4
5. 매우 그렇다	0.0	1.1
계	100.0	100.0

## 2-4) 북한 내부의 경제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9	3.3
2. 그렇지 않다	15.5	16.5
3. 보통이다	51.5	51.6
4. 그렇다	31.1	26.4
5. 매우 그렇다	0.0	2.2
계	100.0	100.0

## 2-5)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9	12.1
2. 그렇지 않다	42.7	48.4
3. 보통이다	44.7	35.2
4. 그렇다	7.8	4.4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2-6) (전망) 남북 간 경제적인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6.6
2. 그렇지 않다	14.6	39.6
3. 보통이다	48.5	33.0
4. 그렇다	34.0	20.9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3.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

## 3-1)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문화, 체육 및 이산가족 상봉 등)가 활발해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4.9	13.2
2. 그렇지 않다	48.5	36.3
3. 보통이다	42.7	38.5
4. 그렇다	3.9	12.1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3-2) 북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높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10.7	17.6
2. 그렇지 않다	46.6	47.3
3. 보통이다	38.8	35.2
4. 그렇다	3.9	0.0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3-3)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이 증대되었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9	12.1
2. 그렇지 않다	35.9	40.7
3. 보통이다	48.5	37.4
4. 그렇다	11.7	9.9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3-4) (종합) 전반적으로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인 관계가 좋아졌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3.9	14.3
2. 그렇지 않다	42.7	39.6
3. 보통이다	44.7	39.6
4. 그렇다	8.7	6.6
5. 매우 그렇다	0.0	0.0
계	100.0	100.0

## 3-5) (전망) 남북 간 사회·문화·인도적 관계는 현재보다 좋아질 것 같다

항 목	4분기(%)	3분기(%)
1. 매우 그렇지 않다	2.9	7.7
2. 그렇지 않다	21.4	29.7
3. 보통이다	37.9	44.0
4. 그렇다	36.9	18.7
5. 매우 그렇다	1.0	0.0
계	100.0	100.0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8	4.3	3.0
	설비투자 (%)	0.1	-1.5	7.5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5	5.9	6.2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